

세종북부소방서, 싱크홀 대비 특별훈련 실시한다

세종북부소방서가 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에 대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땅 꺼짐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3일 어진동 국립세종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는 깊이 20cm 규모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땅 꺼짐 재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인명구조, 대원 안전 확보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 드론 활용 상공 수색 및 인명 구조 ▲고가사다리차 현장 적용 훈련 ▲인명 검색 기법 및 로프 구조 훈련 등이다. 신규인 대응예방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과 실천 감각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소방본부가 24일부터 26일까지 세종소방전술훈련장에서 '신속진입구조(VETS) 훈련'을 진행했다.

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 2026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해

대전 중구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인 주양순 청렴공정연구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영상과 AI로 만나는 청렴 공감 토크'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AI 참여형 방식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청렴 교육은 단순한 의무 교육을 넘어 우리 구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자리"라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해 ▲청렴협업체 운영 ▲청렴 클린메시지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청렴소통』 창구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27일까지 「서비스이용 불편사항 신고 안내」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관내 승강장에 부착한다. 안내 스티커에는 이용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정류장 번호와 유지관리 부서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채봉 기자

대전시 첫 공공돌봄 시립요양원 개원

108병상 규모, 총 36개 생활실, 26년 4월부터 선착순으로 48명 입소자 모집



대전시는 동구 판암동에 대전 최초의 공공요양시설인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이 3월 2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개원식은 이장우 대전 시장을 비롯해 박희조 동구청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박현철 대한노인회동구지회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서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은 동구 판암로 128-52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입소 정원에는 총 108

명으로 1인실 9개, 3인실 9개, 4인실 18개 등 총 36개 생활실을 갖춰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은 1유닛당 12명이 생활하는 총 9개 유닛 형태로 구성돼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구현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획득했다.

특히, 전체 유닛 중 2개 유닛은 치매전담실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 종사

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입소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중 시설급이 판정을 받은 대전 시민이며, 4월부터 시립요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으로 48명을 1차 모집한다.

나머지 인원은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를 위해 방문을 통한 신청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요양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이 공공요양시설로 첫 출발을 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인증받은 대전시는 이번 시립요양원 개원을 계기로 공공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

논산딸기축제 D-DAY 달콤한여정

어린이 공연, 글로벌 퍼레이드 등 볼거리·체험 '가득'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논산딸기축제'가 4월 간의 달콤한 여정을 시작했다.

26일 개막 첫날부터 축제장은 어린이 공연, 글로벌 퍼레이드,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하루가 되었다.

주무대에서는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레이드발소 싱어송송'을 오전·오후 두 차례 선보여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딸기광장 주변에서는 딸기 축제 캐릭터 '꿀라주' 체험, 논산딸기 스마트팜 기반 주제관, 글로벌 페스티벌존 세계 음식 체험 등 상설 프로그램도 본격 개장했다. 힐링숲에서는 5개국 작가가 참여하는 NoN 국제 조형미술 프로젝트 '연금술사 N.A.'가 오후 4시 퍼포먼스 공연과 함께 첫 공개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글로벌 퍼레이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양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 시민가족

공원 주무대까지 이어지며, 화려한 행진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저녁 시간에는 본격적인 개막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공연들도 이어졌다.

오후 6시부터는 개막식이 진행되며, 이어 '달콤한 동행 콘서트'에는 강진, 손태진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첫날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끝으로 오후 9시에는 젊은 층이 함께 어우릴 수 있는 'EDM DJ 쇼'가 열기를 더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딸기축제만의 달콤한 향기와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며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논산에서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가 '2026 논산딸기축제'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딸기 판매·홍보 부스, 푸드트럭, 딸기 꼬마차 탑승장 등 총 25개의 가로등에 손소독제가 비치됐다.

이현진 기자

준설토 투기장·관리부두 완공했다



충남도는 보령신항이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보령신항에 조성한 41만 9000㎡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첫 삽을 뜬 후 5년 여에 걸쳐 준설토 투기장 710억원, 관리부두 508억원 총 1218억원을 투입했다. 축조장 59개 면적에 달하는 준설토 투기장은 보령화력발전소를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도는 2030년까지 항로 준설토 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항로 준설은 보령화력을 운영하는 중부발전(주)에서 추진한다. 관리부두는 보령항을 이용하는 무역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선, 도선선, 항만수찰선 등이 정박하는 전용 부두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우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준공은 보령신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의 개발 방향을 차질 없이 수립해 보령신항이 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수출 효자로 자리 잡은 김의 탄소 흡수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 김의 무기탄소 흡수와 용존유기탄소 발생 및 안정성 확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해조류 기반 탄소 흡수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전체 김 양식장에서의 탄소저감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충북도청 본관 그림책정원 1937 다시 열려

도민의 땅에서 시작된 공간, 문화로 이어지다...오는 3월 31일 공식 개관

1937년 건립된 충북도청 본관이 90년의 시간을 지나 새롭게 문을 연다. 충북도가 2024년 3월부터 추진해 온 도청 본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31일 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을 공식 개관한다. 이번 개관은 근대 관청 건축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세대를 건너 도민의 일상 속 문화거점으로 확장되는 역사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관이 들어선 이 자리는 과거 도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을 즐기며 휴식을 누리던 공간이었다.

이후 1937년 세워진 도청 본관은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지방자치의 흐름을 지나며 충북의 시간을 함께해 온 상징적 건축물이다.

붉은 벽돌 외관과 좌우 대칭 구조를 갖춘 이 건물은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며 그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

았다. 이번 사업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외형을 크게 바꾸는 대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간 속에 가려졌던 붉은 벽돌의 질감과 공간 구조를 되살리고, 기존 건축의 틀을 존중해 채 내부를 문화·체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역사적 건축물의 형태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재의 쓰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장한 것이다.

새롭게 문을 여는 「그림책정원 1937」은 그림책을 매개로 전시와 체험, 교육이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1층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열람 공간과 국내의 그림책 서가로 조성되며, 2층에서는 정승각 작가전과 엘레나 셀레나 작가전이 열린다. 3층에는 팝업북 전시, 메이커스페이스, AI 스페이스, 역사 아카이브, 교육실 등이

마련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관은 도청 일대 공간 재편의 흐름 속에서 완성된 변화이기도 하다. 과거 도민의 휴식 공간이 행정의 중심을 거쳐 다시 문화와 일상의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충북 공간사의 흐름이 새로운 단계로 확장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년 전 도청 본관을 다시 도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번 개관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자리이자, 충북 문화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개관 이후 정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청 일대 문화시설과의 연계 강화해 「그림책정원 1937」을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구 리 시

2026 장자호수 빗꽃마실

버스킹 | 퍼레이드 | 체험 부스 | 와구리 굿즈 이벤트 | 거리 전시

2026. 4. 11. (토) ~ 4. 18. (토) 장자대로 일원(장자호수공원)

4.11. (토)
건기행사 / 빗꽃버스킹
거리 농악 퍼레이드
개막공연 / 부스운영

4.12. (일)
백파이프&폴크댄스 퍼레이드
가곡의 밤 콘서트
부스운영

신난당!

와~ 이쁘다!

문의 | 문화예술과 ☎ 031-550-2485